

폐광 1년 앞 한숨 깊은 '화순광업소'

향후 대책 놓고 정부·군·노조간 입장차...노조 "위로금 50억원 부족" 부지 매입비 325억원...정부 "80%만 지원" vs 군 "100% 지원" 팽팽

우리나라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의 내년 폐광을 앞두고 근로자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화순군과 석탄공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석탄 감산 방침을 담은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 말 폐광이 결정됐다. <광주일보 2월 14일자 1면 보도>

하지만 폐광을 1년 가량 앞둔 시점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기로 한 위로금과 광업소 부지 매입 자금, 대체산업 육성 등을 두고 정부와 화순군, 노동조합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당장 생업을 잃게 된 노동자들 손에 쥐어지게 될 특별위로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위로금 총 167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최소 30억원 많게는 50억원이 더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지급방식은 기능직(탄광 노동

자)에게 불리한 산정 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명예퇴직금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 급여의 45%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본급이 적은 노동자들은 월평균급여의 45%를 적용해 위로금을 받게 될 경우 일반직과 견줘 20% 정도 적은 위로금을 받게 된다며 기준급여를 월평균 급여의 60%까지 상향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한다.

현재 화순광업소 종사자는 272명. 지역민들은 과거 노동자만 1500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숫자지만 지역경제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화순군은 현재 폐광을 앞둔 강원도 지역 지자체들과 함께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폐광에 따른 산업붕괴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용역이다. 연구 용역은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순광업소 부지 매입을 두고도 견해차가 뚜렷

하다. 화순광업소는 석탄공사 소유 부지로 예상 부지매입비는 325억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지매입비 80%(260억)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화순군은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양계열 화순군 도심개발팀장은 "부지매입 비용 또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관광, 레포츠 체험형 복합단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려볼 수 있다"며 "광업소 노동자도 화순군민이기에 군은 특별위로금 문제와 부지매입, 대체산업 육성 등 광업소 관련 모든 문제를 노동계와 뜻을 같이해 정치권과 만나 꾸준히 대화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속도 조절' 중인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탄광 운영이 좀 더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손병진 석탄공사 노조 화순지부장은 "채굴을 계속하려면 새로운 '팩'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탄을 감지해야 하고 시추도 해야 한다"며 "석탄은 30만원을 들여 캐내 20만원에 파는 구조로, 매년 2000억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는 석탄공사가 추가 지원할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을 느끼고 싶다면 나주로~

8~9일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반남면 고분군 일대 가을꽃 절정

3년 만에 개최되는 나주시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축제장 일대가 가을꽃으로 형형색색 물들어가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8-9일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나주잔치, Play마한!'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를 앞두고 축제장 인근인 반남면 고분군 주변 7만㎡에 황화 코스모스, 꽃 백일홍, 코스모스, 핑크 폴리 등 가을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사진> 축구역장 10배에 달하는 부지에 만개한 꽃밭은 청명한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한다. 1km 구간 산책로와 파라솔(20개소), 포토존(10개소) 등이 설치돼 관광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반남 고분을 배경으로 펼쳐진 형형색색의 꽃밭에서 가을 정취와 향기를 만끽하길 바란다"며 "3년 만에 개최되는 문화제가 마한의 중심 나주를 알리고 관광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에서는 관람객들이 통합의학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장흥군 제공>

신생아·임신부 건강 관리

담양군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선정...1억5천 확보

담양군이 신생아와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담양군은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임신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는 누구나 평가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본 방문 대상의 경우 전문 인력이 출산 후 8주 이내 산모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신생아 성장 발달 확인, 수유·육아 환경과 같은 아기 돌봄 관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속 방문 대상의 경우 출산 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속 관리하게 된다.

위기 상황 가구의 경우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문분야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체계적·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임신·영아기의 건강 수준 향상과 양육 환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380-3976. /담양=한동훈 기자 hhdh@

'강진만 갈대밭 탐방로' 공모사업 선정

국비 14억원 확보...생태관찰탐방로 데크길 1km 조성

강진군이 환경부 주관 '2023년 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 공모사업'에 강진만 일원 갈대밭 탐방로가 선정, 국비 등 14억원을 확보했다.

강진만은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천연기념물 큰고니의 도래지뿐 아니라 멸종위기종 10종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큰 곳이다.

현장실사에 나선 평가위원들은 강진만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에 감탄하며 전국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호평했다.

군은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기존 조성된 산책로에 생태관찰탐방로 1km를 연결해 강진만 갈대밭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설 구간 내 도보 이용객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쉼터를 조성하고 고니를 비롯해 강진만에 서식하는 생물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도 설치한다.

모든 사업은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마치고 2024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만을 대한민국 명품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고 생태홍보관, 자전거 여행센터, 지방정원을 갖춰 향후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호흡 테라피·건강 치유 체험 '인기'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3년만에 개최...침·뜸 체험 등 호평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5대시간 일정을 마치고 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이번 박람회는 '사람 중심 통합의학, 장흥에서 세상으로'란 주제로 3년 만에 열려 이목을 끌었다.

대학병원, 대학, 기관, 협회 등 다양한 기관의 의료진과 전문가가 참여해 통합의학 진료 체험을 제공했다.

주제관, 통합의학관, 보완대체 의학관, 힐링 테라피관, 의료산업·특산물 판매관 등 주제관은 박람회 역사와 통합의학 진료 시스템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학병원, 대학들이 운영한 통합의학 대학관은 무릎 관절 진단, 피부질환 치료, 혈관 노화도 검사, 침·뜸 등 체험으로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홍채 검진, 배꼽 호흡 테라피, 발 마사지, 마음 건강 치유 체험과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다.

심리테스트, 향수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반려 식물 키우기 등 부대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